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름

(금요일 — 오후 집회)

메시지 6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5)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身長)

성경: 히 6:1, 엡 4:13, 16, 골 2:7, 아 4:8, 6:13, 7:8

I.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성숙의 영역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 히 6:1.

A. 생명의 성장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하는 것이다.

B.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충분히 성장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 엡 4:13.

II. 우리에게 영적인 신장, 곧 그리스도의 신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없다 — 골 2:7, 엡 4:16.

A.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건축되고 있으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신장이 증가하는 것, 곧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우리가 건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인 교회로 건축됨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축되고 신장의 증가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C. 몸의 건축은 모든 믿는 이들 개개인의 직접적인 건축에 달려 있다. 우리가 건축된 지체들이 될 때, 몸 안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 엡 4:16, 골 2:7.

III.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성장하는 것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A.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 요 1:12-13, 3:15, 요일 5:11-12, 골 3:4.

B.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라신다 — 갈 2:20, 엡 4:15.

C.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신다 — 갈 4:19.

D.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 — 엡 3:17, 빌 1:20-21상.

E.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1.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채워진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성숙하게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다 — 엡 3:19.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 사람들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다 — 엡 1:4-5.

IV.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는 체험은 다음의 중점들과 관련된다.

- A.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문제, 곧 몸의 문제이다 — 엡 4:13, 16.
1. 어떤 믿는 이도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체험은 오직 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오직 몸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할 수 있다 — 엡 4:13, 16.
 2. 타고난 조성이 파쇄되는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몸을 볼 것이며,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체험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골 2:19.
- B.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갈 4:19, 엡 3:17, 살전 5:23.
1. 생명에 대한 믿는 이의 체험이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할 때, 그의 존재의 내적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스며든 상태에 있는 것이다 — 엡 3:17.
 2.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로 더욱더 처리되고 파쇄될수록,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 부분들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장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게 된다 — 고전 15:45하.
- C. 믿는 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를 때, 그는 객관적인 사실에서뿐 아니라 체험에서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 엡 2:6, 골 3:1-3.
1. 그리스도는 하늘들에 앉으시고 보좌에 오르셨으며, 성숙한 믿는 이 또한 하늘들에 앉고 보좌에 오른다 — 엡 1:20-21, 히 1:3, 계 5:6.
 2. 그리스도 자신께서 하늘들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여 그분의 위치에 참여한 이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 엡 1:20, 2:6.
- D.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 — 롬 5:17, 21, 딤후 2:12.
1.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된 이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 롬 5:10, 17, 21.
 2. 생명은 성숙에 이를 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 E.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를 처리한다 — 히 2:14, 빌 2:9-11.
1.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고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성숙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승리의 위치에 앉아서, 다만 원수를 처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아 4:8.
 2.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를 처리하는 단계에 이를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최고봉에 도달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했다는 증거이다.
- F.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이 단계에 도달할 때,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성숙에 이른 것이고, 그는 휴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에 들어가기로 기다린다 — 계 12:5, 14:1.

V. 한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을 점진적으로 체험해 가는 것을 묘사하는 아가(雅歌)는 어떻게 주님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제시해

준다 — 아 1:9, 2:2, 14, 3:6-7, 9, 4:12, 6:4, 10, 13, 7:1, 8, 11, 8:1-5상.

- A. 그녀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소인 그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엄위하다 — 아 4:8, 6:4.
- B. 그녀는 초월한 상태, 하늘에 속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천체(天體)로 변화되었다. 즉 그녀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 아 6:10상.
- C.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인은 술람미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아 6:13, 계 19:7-8.
- D. 그녀는 종려나무에 비유되는데, 이것은 성숙한 그녀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했음을 가리킨다 — 아 7:8, 엡 4:13.
- E. 술람미는 이곳저곳에서 체류하며 사랑하는 분과 함께 그분의 몸을 위해 일함으로써, 사랑하는 분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 아 7:11, 엡 4:12.
- F. 그리스도의 연인은 성장과 변화를 통해 생명이 성숙하게 되며, 그녀의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몸의 구속을 통해 휴거되는 것이다 — 아 8:1-5상, 계 12:5, 7-11, 14:1, 4하, 19:7.

사역의 밑받침에서 발췌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도달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성숙의 영역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모든 생명의 공과를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짜일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의 성장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둘째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신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신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그리스도께서 자라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며 점점 더 나타나시게 되면, 어느 날 우리 각 부분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다섯째 단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장성하시게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체험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첫 번째 단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첫 번째 단계를 체험한 적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으며, 뒤따르는 생명의 체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다. 두 번째 단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성장하시는 것에 관하여,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것에 관하여는 많은 이들이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게 되는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을 체험한 이는 더더욱 적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장성하시게 되고 우리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지상의 온 교회 가운데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대한 이

공과를 다루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우리는 다만 몇 가지 주안점을 열거하고, 그 주안점들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I.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먼저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는 이 단계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체험은 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몸 안에서 얻게 되는 온전한 체험이다.

육체와 타고난 성분이 깨뜨려지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될 것이다.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즉 주님 안에서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임재를 접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깊이 깨닫게 된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순간부터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때까지, 그의 영적인 생명은 몸 안에 있으며 그의 모든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로 몸 안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몸 안에서의 체험이다.

누구도 몸 밖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체험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해서 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되는 것은 몸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몸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일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단 한 번 언급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저자는 개별적인 성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해야 함을 보게 된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참조해 볼 때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성숙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자신이 개별적으로 생명의 성숙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실상 사람이 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일 수 없다.

II.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게 됨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생명의 체험이 그 절정에 이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그 사람의 온갖 부분에 스며들게 된다. 그 사람의 영의 여러 부분뿐 아니라 그의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게 된다. 때로는 그 사람의 육신의 몸도 영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된다(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들의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는데, 이 일은 우리가 휴거되어 변형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이때 그 사람의 생명이 장성한 데 이르게 된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 지금까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조금

밖에 없다. 그들의 생각은 대개 자신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불결하거나 타락된 것이 거의 없지만,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도 거의 없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신장이 매우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의 의지는 비록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항하거나 그릇되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의 성분은 대부분 자신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매우 적다. 또한 그들은 감정에 있어서 마음가짐이나 갈망이나 성향이 흠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입증되는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신장이 충만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으며, 영적 성장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음을 안다. 영은 중심이고, 몸은 바깥 주변이며, 이 둘 사이에는 혼이 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때부터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자라시게 된다. 먼저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밖으로 뻗어 나가신다. 그분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성분, 특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에 의해 더 처리되고 더 부서질수록,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들 안에 더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성분이 그리스도이며, 이럴 때 그리스도의 신장이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된다.

이때에 우리 생각의 모든 사고, 개념, 관념, 관점과 우리 감정의 온갖 즐거움, 분노, 슬픔, 기쁨, 기호와 우리 의지의 모든 판단, 결정, 의도, 선택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으며, 우리의 즐거움이 곧 그리스도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의도가 곧 그리스도의 의도가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의도할 때 의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때에 우리 속의 각 부분은 십자가로 처리되고, 자아나 타고난 성분을 위한 여지가 없으며, 모든 기반을 그리스도께 양보하게 된다. 우리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III.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참여함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에서뿐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심같이 그 사람 역시 그러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같이 그도 또한 그러하게 된다. 이때에 그 사람은 쉼자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에서 요동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참여한 자들도 그러하다. 그 사람은 장소나 시간으로 인하여 요동치 않으며,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도 여전히 하늘에 앉아서 요동치 않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른 사람의 상태이다.

IV.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른 자의 또 하나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그의 생명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생명이 장성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영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여섯 살 난 아이에게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아이에게 왕관을 씌우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의 지배 아래 두어도 그 아이는 공놀이 하러 달아나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미숙하면 다스릴 방도가 없다. 사람의 생명이 장성한 데 이르면 자연적으로 다스리게 된다. 아가(雅歌)에 나오는 여인을 생각해 보자. 그녀의 속 생명이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게 될 때에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엄위하고 두려움을 보이게 된다(아 6:10). 만일 어떤 사람이 이처럼 초월하여 하늘에 속한 상태에 이르지 않고서 스스로 노련하다고 자처하여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한다면, 그는 다만 자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전시해 보일 뿐이며, 그러한 것은 결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못난 짓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다스림은 위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위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 생명이 필요하다.

이 사실은 영적 생명에 있어서 사실일 뿐 아니라 육체의 생명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어린아이의 진술은 아주 하잘것없지만 같은 상황과 같은 시간에서 성인의 진술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며, 칠, 팔십 세 정도의 나이 든 사람의 진술은 더욱 무게가 있다. 말의 무게는 나이에 비례한다. 어떤 연령에 이르게 되면 말에 깊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권위도 생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생명이 성숙해질 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은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이 권위를 얻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리게 하셨다. 이렇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팡이는 권위를 나타낸다. 열두 지팡이들 중에서 오직 하나에만 움이 돋고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생명이 성숙한 이들만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최고로 성숙하고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휴거되고 변형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우리 자신은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에까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이 될 것이다.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 생명의 성숙에도 적용된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V.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처리함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른 사람의 또 다른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처리하는 것이다. 대적을 처리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은 생명 안에서의 충만한 성숙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성숙하게 되면 영적 전쟁은 끝난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승천의 위치에 앉아서 다만 대적을 처리할 뿐이다.

주 예수님의 전쟁의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할 무렵 시험을 받은 때부터 계속해서 사탄과 싸웠다. 그러나 보좌에 오른 후에 그분은 전쟁을 멈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대적을 처리하여, 점차로 대적이 주 예수님의 발아래 굴복하여 그 발 받침대가 되도록 하신다(히 1:13).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처리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것은 우리 생명이 최정상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승리한 이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자리에 좌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 모든 강도와 줌도둑이 완전히 소탕되어 더 이상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의 명성은 과거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 예는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처리하시는 원칙을 설명해 준다. 만일 그리스도나 그의 이름이 오늘날 이 우주 가운데 있지 않다면, 사탄이 얼마나 더 사나울 것인지 상상해 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마다 대적이 달아나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대적을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주님의 일에서 동일한 상태를 보게 된다. 깊이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혹은 몇 명만 있어도 교회 안에나 주님의 일에 어려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권위를 가지고 대적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임재가 대적을 정복한다. 마치 아무것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임재가 대적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적을 처리하는 일은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의 각 부분이 성숙된다. 그는 휴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휴거되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한다. 수확물이 익으면 추수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의 문제를 예언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휴거는 생명의 문제이다. 교회의 생명, 곧 성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 성숙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익게 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라는 밭에서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일 준비가 되어 있게 된다. 이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교회가 휴거될 때에 일어난다(계 14장).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영광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게 될 때,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다스리며 처리하게 된다. 그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의 몸이 아직 영광스런 몸으로 변형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모든 것이 최상, 즉 최종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도의 생명의 체험은 이로써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제 휴거되어 영광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생명의 체험(하), 307-319쪽)*